대종회와 郎中公유적수호비대위

연석회의 열고 학술조사위원회도 구성

▲ 대종회와 기로회의 오찬 모임이 열리고 있다.

▲ 권정달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퇴계로 소재 음식점 '대림정'에서 권정달權正達 대종회장이 안동권씨기로회원耆老會員 모두를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형식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이 식사 모임의 성격은 그간 대종회가 추진해온 아시조 낭중공郎中公의 단소壇所 이전에 대해 이를 반대해온 기로회 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그간 대종회와 중앙종친회가 권문의 원로 모임인 기로회를 소원히 하여 쌓인 섭섭함도 무마하는 차원이었다. 그런데 기로회가 또한 '안동권씨아시조단소유적보존수호비상대책위원회'의 모체이기 때문에 동 대책위원들이 대거 이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고 대종회측에서도 낭중공단소이전추진위원들이 참석하여 자연 4자간 연석회의와 같이 되었다. 즉 안동권씨대종회와 단소이전추진위 및 안동권씨기로회와 단소유적수호비대위의 합동 연석회의가 된 셈이었다. 이날 모임의 주요 참석자는 권정달 대종회장 겸 중앙종친회장과 권영한權永漢 단소이전추진위원장, 권오선權五宣 중앙종친회 상임부회장, 권경석權景晳 중앙종친회 사무처장 겸 종보편집인 등이 단소 이전의 추진측이 되고, 반대측에서는 권병홍權炳洪 기로회장, 비대위공동대표인 권영익權寧翼 근기요산회장, 권오흥權五興 성균관전례교육원장, 권영성權寧星 전 영천종친회장과 권오갑權五甲 전 과기부차관, 권택진權宅鎭 전 성균관대교수가 참석하여 총 40여인이 되었다.

▲ 권영익 낭중공유적수호비대위 공동대표가 권정달 회장에게 건의문을 전하고 있다.

권정달 대종회장은 인사말에서 '유년기 선친을 따라 춘추의 선대 세향을 찾아다녔는데 그러한 영향인지 늦게 종사에 간여하여 대종회장의 무거운 직임까지 받게 되었다. 본인은 살면서 어떤 직책이 주어지면 열과 성으로 그 직분을 수행해 왔는데 이 대종회장의 직임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며 배전의 노력으로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는 요지를 말하고 이어 낭중공 단소의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단소가 있는 청도는 안동에서 거리가 멀어 1년에 춘추로 두 번 제수를 차려 가지고 가 향사를 받드는데 어려움이 크다. 또한 청도의 봉암재사에서 단소까지의 길이 멀고 협소하며 오르막이 가파라 연로한 헌관과 제관이 힘겹게 행사한다. 그리고 재사가 퇴락하여 썩은 마루가 꺼지면서 참제자가 정강이를 다치는 불상사도 있었다. 게다가 경북도와 청도군청에서는 그곳이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한다. 청도의 권릉權陵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간다. 그리고 안동의 능동에서는 단소의 이전에 필요한 정지작업과 석물 설치에 관한 계약을 마쳐 이미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되돌릴 수가 없다. 이는 능동재사의 대당회에서 인준된 사항이다'하는 등의 이유를 매거하고 그동안 이단을 반대해온 기로회원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 비대위의 권영성 공동대표가 낭중공 단소의 이설移設에 대한 반대의견을 발언하였다. 권영성 공동대표는 '낭중공 단소의 이설을 현재대로 추진하는 것은 안동권문의 유구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망각한 성급한 처사이고 결정이다. 시조 태사공 묘소를 실전하고도 5백년이 지난 후에 심득해 수호하면서 또한 아시조 묘소를 찾고자 백방으로 노력한 문중 선대의 얼을 생각해서도 이런 졸속은 피해야 한다. 140여년 전 영남관찰사로 나온 선대인이 청도 권릉의 전설과 그 실증을 찾고자 수탐하였던 일을 상기해서도, 무엇이 의심스럽다거나 멀고 불편하다는 등 이유로 이래서는 안된다. 그 후 수백년 의논을 모아 경주、대구、영천、안동 등지에서 설단 향사를 주선한 유래와 연혁을 생각하고 일대에서 지금껏 수호하며 향사를 받들고 있는 많은 후손에게 한 차례 불러모아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이 하루아침에 현단소와 유적을 포기하고 안동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이는 종권을 장악한 소수의 자손이 우리 안동권씨 백만 자손의 숭조이념과 자긍심을 순간에 짓밟는 처사라 여기며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이 자리에서 나는 오래 전부터 구상한 바를 제안하겠다. 낭중공 실묘 찾기를 먼저 시작하자. 선대에서 이루지 못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어서 수행해야 한다. 낭중공 단소 뒤의 권릉 고총 2기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를 실시하자. 사계의 학술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대장비를 동원해 면밀한 조사를 하여 보고 나서 결론을 얻자 그런 다음 권문 자손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을 충분히 모아 이단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요지를 설파하여 좌중을 숙연케 하였으며 말을 마치자 실내는 정적을 깨고 떠나갈 듯한 박수가 터졌다.

▲ 권영성 비대위 공동대표가 단소이전 반대의견과 함께 제안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비대위의 공동대표인 권홍섭權洪燮 성균관유도학술원 초빙교수가 발언하여 '80여년 전 청도의 낭중공 설단 당시를 문헌을 통해 회고하면서 선대의 식견이나 숭조이념이 지금의 우리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에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단소이전의 불가함을 말하면서 세부득이 강행코자 하더라도 '3백년 동안 권성인은 물론 인근 타성 주민과 식자들의 마음에 그곳이 안동권씨 아시조의 유적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사실을 함부로 불식할 수 없다. 이참에 사계 전문학자의 학술조사, 즉 지표조사地表調査와 발굴조사까지를 총체적으로 실시하여 권릉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동대표 권영익 근기요산회장도 같은 취지의 발언에 이어 비대위에서 이보다 앞선 7월 초순에 회합을 가지고 7월 중순에 최종 문안을 마련한 대종회장에게 드리는 '건의문'을 권정달 회장에게 전달하였고, 권택진 교수는 앞에서 개진한 비대위 공동대표들의 의견과 제안에 동의하면서 다만 만부득이한 사태의 변전에 따라 단소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유서 깊은 청도의 낭중공 유적은 버릴 수가 없으므로 우리가 후손된 도리로 수호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뜻을 결연히 표했다.

권대성權大城 불교박물관장은 아시조 낭중공의 묘소가 계실만한 곳은 안동의 능동 일대와 서울의 양천구 가양동지역, 그리고 청도의 권릉 세곳이라 할 수 있는데 앞의 두 곳은 근거가 될만한 실마리가 없고 다만 청도에 현존해 내려오는 권릉을 발굴조사해 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오선 중앙종친회 상임부회장은 이미 안동의 능동에 단소 이전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여 진척이 되고 있으니 모두 이를 인정하고 동참하자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찬성의 박수를 유도했으나 그 호응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권기봉權琪奉 기로회원이 모두가 화합하는 방향으로 일을 원만히 추진하여 아무쪼록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할 것을 제의했고 권정달 대종회장이 다시 연단으로 나가 이

9면으로 계속

창화공昌和公 추향 안내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서곡리 민통선내에 계신 창화공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14世 準) 묘소의 추향秋享과 종회 총회를 다음과 같이 거행하오니 본방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 2009년 10월 25일(넷째 일요일, 음력 9월 8일 定日) 12시
교통편 :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09시에 전세버스 출발. 승용차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할 시는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임진강 전진교 남단에 11시까지 집결.
지참물 : 주민등록증
연락처 : 창화공종회장 권병선 02)957-8822011-273-7475

안동권씨창화공종회장 權 炳 善